

JEITA 발표, 전자정보산업의 세계생산 전망

일본의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이하 JEITA)는 지난해 12월 15일 「전자정보산업의 세계생산 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본고는 월간 Multi function Printer 2010년 1월호에 실린 보고서 중 PC, Printer, Image scanner, IT Solution Service의 전망 내용을 전제한다. 〈편집자 주〉

PC

2009년의 PC 세계생산액은 18조8740억엔이며, 이 중에서 일본계 기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에 해당하는 3조1387억엔으로 예상했다. 이중 일본내생산은 6517억엔, 일본계 기업의 일본내 생산비율은 약 21%로 예상했다.

◆ 세계생산동향

저가의 기능을 한정시킨 넷북의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자리 수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노트북형 PC의 수요가 데스크탑 PC의 수요를 상회하여 계속 성장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나 새로운 OS의 발매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2010년에는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일본계 기업의 생산동향

노트북형 PC의 세계적인 수요의 호조는 일본계 기업의 해외를 향한 성장을 견인하여, 일본계 기업 전체의 규모는 일본시장의 약 4배 이상의 규모가 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계 기업의 해외생산중심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일본내 생산동향

일본내 생산은 일본계 기업의 일본시장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비즈니스 시장은 교체(replace) 수요에 기대하고 있지만, 경기 후퇴로 인한 IT 투자 억제의 영향을 받아 저조하다. Consumer 시장에서도 AV 기기와의 연휴 소구(訴求)에 의한 신규 수요확대가 있기는 하지만, 저가의 기능을 한정시킨 넷북의 수

입 확대도 무시할 수 없어 일본내 생산은 마이너스로 전망했다. 2010년은 대수 기준으로 회복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Printer

2009년의 프린터 세계 생산액은 3조2835억엔으로, 이중에서 일본계 기업이 차지하는 생산 비율은 33%에 해당하는 1조777억엔으로 예상했다. 이중 일본내 생산은 1064억엔으로 일본계 기업의 국내생산비율은 약 10%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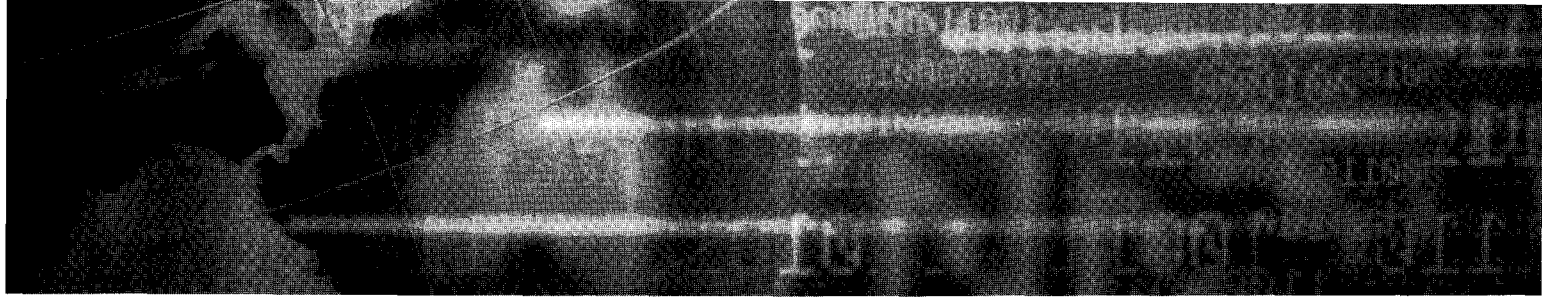
◆ 세계생산동향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서구나 북미, 일본 등 선진지역의 급격한 수요 냉각으로 순조롭게 성장해왔던 BRICs 여러 나라를 대표로 하는 신흥시장도 감소하여 2009년에는 크게 마이너스가 되었다.

앞으로는 경제상황이 회복되는 일부 신흥시장에서의 수요증가, 잉크젯 복합기를 중심으로 하는 Consumer 시장의 완만한 회복도 예상되지만, 레이저 프린터와 복합기의 비즈니스 시장에서의 경기 침체로 인한 대체 사이클의 장기화나 신규 도입의 억제, 저가격화의 영향이 계속되어 2010년에는 전체적으로 보합상태로 전망했다.

◆ 일본계 기업의 생산동향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선진지역 수요의 급격한 냉각이나 신흥시장의 감소로 2009년에



는 큰 마이너스를 예상했다.

앞으로는 세계생산동향과 마찬가지로 일부 신흥시장에서의 수요증가가 있겠지만, 컬러 레이저 프린터와 복합기의 수요회복은 급속하게는 진행되지 않고, 2010년에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일본내 생산동향

일본계 기업의 일본국내 생산비율은 10%로, 이미 대부분을 해외 생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컬러 레이저 복합기 등 일부 고급기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요가 냉각되어, 2009년에는 크게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도 거의 보합 상태의 추이로 전망했다.

Image scanner/OCR

2009년의 Image scanner/OCR의 세계생산액은 1512억엔으로, 이 중에서 일본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3%에 해당하는 805억엔으로 예상했다. 그 중 일본국내 생산은 152억엔으로 일본계 기업의 국내생산비율은 약 19%로 예상했다.

◆ 세계생산동향

Consumer용 스캐너는 복합기의 확대 등으로 마이너스로 예상했지만, 업무용 스캐너는 기업통제강화, 정보보안강화를 배경으로 확대 경향에 있다. 세계적인 경기 후퇴에 의해 2009년에는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앞으로는 종이문서의 전자화 요구가 고조될 것으로 기대되어, 2010년은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일본계 기업의 생산동향

Image scanner/OCR의 일본계 기업 생산 비율은 53%로 매우 높아, 일본계 제품은 세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종이문서의 보관 비용의 삭감,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종이문서의 전자화 요구에 대한 고조는, 일본 국내뿐 아니라 구미 등의 선진 여러 국가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도 중요시되고 있어, 2010년에는 견조한 신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 일본내 생산동향

OCR은 언어에 크게 의존하는 제품이므로, 일본계 기업의 일본국내 생산은 거의 일본국내수요와 일치한다. 대기업 고객용으로 볼 수 있는 일시적인 수요에 의해 생

산량은 급속히 신장하는 일도 있지만, 2009년에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반영하여 생산액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정권교체에 의한 정부 수요 저하는 있겠지만, 복합기, 기타 소프트웨어, 시스템용 편입 수요가 확대되고 경기회복도 작용하여 2010년에는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IT Solution Service (SI개발/소프트웨어/아웃소싱·기타 서비스)

2009년 IT Solution Service의 세계매출은 55조1850억엔으로서, 이 중에서 일본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에 해당하는 5조4159억엔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세계동향

Cloud computing이나 Green IT 등 새로운 시장을 유인하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급격한 경기 감속에 의한 IT투자억제의 영향을 받아 2009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구미의 선진 여러 국가에서는 IT를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여 경영전략차별화로 연결시키는 움직임이 점점 진전함에 따라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신흥 여러 국가에서는 경제 성장에 따른 정보화가 SI개발이나 소프트웨어의 도입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은 견조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일본계 기업의 동향

일본계 기업은 일본국내 시장이 중심이 되는 만큼 일본내에서의 대폭적인 경기 후퇴의 영향을 받아, 제조업을 비롯한 많은 산업에서 IT 투자의 재검토나 중단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IT 운용 비용 삭감에 대한 시장 요구도 강하여 2009년은 대폭적인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기 회복에 따라 업무프로세스의 최적화 등을 위해 금융계, 제조업, 유통서비스업, 관공서 등 폭넓은 분야에서 수요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IT 투자의 중요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대책으로의 IT 활용에 대한 기대나 Cloud Computing의 도입 등이 IT 투자 증가를 견인할 것이라는 점에서 2010년은 견조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